

“청년·기업 찾아오는 광주 건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형일자리사업 성공시켜 광주를 미래자동차의 메카로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선 7기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에 대해 “제도를 이탈한 광주시정을 정상궤도로 안착시켰던 기간”이라고 자평하면서 향후 3년간의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남은 3년 청년과 기업 찾아오는 광주 건설” 이 시장은 우선 광주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사업을 성공시켜 광주를 명실상부한 미래자동차 메카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다. 광주형일자리적용 모델인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에는 친환경자동차 산업기지를 조성하고, 남구도시첨단산단은 에너지신산업, 첨단3지구에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창업도시 광주의 토대를 마련하고 투자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신산업 육성과 투자 및 창업 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은 시내면 세점 기업 유치와 제2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어등산관광단지 조



이용섭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실에서 ‘민선7기 1년 시정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사업에도 속도를 내 문화관광도시로 광주를 키워나가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성과는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과 도시철도 2호선 논란 마침표=이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노사상생의 완성차공장 투자협약 체결 ▲17년 논란을 끝낸 도시철도 2호선 8월 착공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켰고, 그 첫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자본으로 완성차공장이 광주에 건립된다”며 “자동차공장과 부품공장이 들어서면 광주에 1만2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경제 체질을 혁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올 하반기 자동차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16년간 찬반논쟁을 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확정하며 협치 행정의 성공모델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광주가 갈 길은 분명하다. 1년 전 취임사에서 약속 드렸던 대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시장이 되어 광주를 정의롭고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섬·해양·하늘·바람·자원 활용 혁신성장 5대 프로젝트 제시

“지지율 전국 1위 10차례”, ‘전국 일자리 대상 수상’, ‘사상 최대규모 국비 확보’, ‘한전공대 전남 유치 확정’.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한 지 1년 만에 일궈낸 성과는 화려하다. 그럼에도, 김 지사 주변에서는 민선 7기 취임 후 1년간 기존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한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들어 ‘색깔’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26일 밝힌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는 1년 간 준비해온 ‘김영록표 색깔’을 드러낸 비전이라는 게 전남도 안팎의 평가다.

◇블루 이코노미, 전남의 미래를 열어가길 동력=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전남이 갖고 있는 청정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전남의 미래발전과 혁신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게 김 지사가 강조한 ‘블루 이코노미’ 비전이다. 뜬 구름 잡이식 청사진도 아니다. 지난 1년 간 추진해 왔던 시책들을 점검하면서 계획을 짜는데 주력해온 만큼 현안 리스트 최우선 순위에 이름을 올린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Blue Energy)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Blue Tour) ▲바이오 메디컬 허브(Blue Bio) ▲미래형 운송 기기 산업(Blue Transport) ▲은빛 없는 스마트 블루시티(Blue City) 조성이라는 5대 전략 프로젝트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경우 한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대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에너지벨트를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는 전국 65%에 달하는 섬(2165개), 6743km에 이르는 넓은 해안선 등 풍부한 섬·해양 자원을 활용, 영광에서 목포-순천-여수-부산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벨트를 국가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목포·영광·신안 등을 규제자유특구로 만들고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와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등 전남을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밑그림도 그려졌다.

◇꼼꼼히 챙겨야 할 과제도 산적=장밋

빛 꽃길만 펼쳐진 건 아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현실로 인해 젊은층의 인구 유입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알짜’ 기업 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올 1분기 전남지역 수출은 82억7437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1분기 수출 실적의 경우 2014년 95억2730만달러, 2015년 77억1836만달러, 2016년 66억7350만달러 등으로 3년 사이에 36.3%(37억9696만달러)나 줄어 들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심각한 감소세인 수출 등 경제 현안도 살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1당 의회’ 우려 불식 왕성한 의정활동

광주시의회

조례 129건·안건 272건 처리 부적절 해외연수 여전히 문제

광주시의회는 지난 1년간 143일간의 회기를 진행하면서 272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등 129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개원 초기, 전체 의원 23명 중 20명이 초선이며 22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해 1당 독재 등 우려가 컸지만 무난한 의정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장 선거 과정에 파행을 거듭하



김동찬 의장

고, 논란이 됐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일부의원이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상당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51건을 시정하도록 했고 44회의 시정 질문과 42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또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빛그린산단, 폭우 피해 지역 등지를 찾아 현장활동

을 했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 5·18 진상규명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 광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청와대 국회, 관련 부처를 수시로 방문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시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받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이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었던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광주에 집결한 날 일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 비난을 사기도 했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의장과 위원장 선임을 놓고 의장 출마자 간 계파 다툼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발전·도민 행복지수 높이기 앞장

전남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전체의 70% 한빛원전 강력 대응 ‘눈길’

개원 1년을 맞은 제11대 전남도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전체 조례의 70% 넘는 등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의 의회는 135일간 회기를 운영하면서 3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운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 등을 내놓으면서 의회 안



이용재 의장

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체 206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이 154건(74.8%)에 이른 점은 적극적 의정 활동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한전공대 설립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행 및 코레일 고속철도(KTX) 전라선 증편 촉구 결의안 등 60

건의 건의·결의안도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전남도의회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3건, 주의 10건, 개선 50건, 권고 219건, 건의 8건 등 모두 300건을 처리했고 3일동안 진행했던 예산심사기간을 5일로 늘려 꼼꼼한 심사에 공을 들였다. 우수회(민주·영남 1) 의원은 250건의 보도자료를 냈고 김기태(민주·순 천1) 의원은 226건의 자료를 내며 도민 대표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했다.

한빛원전특별위원회가 영광 한빛원전에 대한 현지조사와 함께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활동을 펼치는 등 특위 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14002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최신훈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